

특별취재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우수'

정읍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생활권 운영체계 분야 유공기관 표창

정읍시가 고택·부안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동상동공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오순도순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로부터 유공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지방위가 현 정부의 지역발전핵심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중점사업인 전국 109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연계협력,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 등을 기준으로 대면과 현장심사를 통한 평가에서 오순도순 행복 만들기 사업이 우수사례(모두 13개

사업 선정)로 선정됐다.

또 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에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위는 전국 63개 생활권과 17개 광역자치단체 80개의 운영체계 평가에서 모두 14개를 생활권 운영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상했다.

시상식은 7일 예산 리스스과개술에서 열린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 및 '역량강화교'에서 있었다.

김생기 시장은 "지나해에 이어 2개 분야에서 2회 연속으로 수상, 대내외적으로 전국 제일의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추진 도시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오순도순 행복만들기 사업과 관련, 시는 고택·부안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 서남부도·농업계 생활권을 구성하고 추진에 나서 지난 2014년 지방위의 '2014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서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올해 수상에 앞서 2015년 선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국비 1억2천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9일간 제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특히 박두기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김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062억원으로 일반회계 5,813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40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8억원으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5,546억원보다 516억원(9.3%)증가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급구중 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19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도 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나병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임시회 기간 중 안전사고에 열정을 보여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소외된 이웃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김제시(시장 이근식)는 7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합니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김제시가 주최하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병철)가 주관하고 이근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 내빈들과 사회복지 기관·시설 이용자,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근식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가슴 따뜻한 복지,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민을 섬기는 지성강민의 행정을 통하여 삶의 품격을 높이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참석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김제시 사회복지 발전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병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신명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준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복지 사업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복지사업 기관으로 성장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로 김제시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장신리일대 가뭄 해결

연일 30°C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부안군 해안지역 하서면 장신리 일대 농경지 60여ha의 가뭄해결을 위해 부안군(군수 김중규),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 수자원공사 부안관리단(단장 김현철)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이 지역의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기관들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안댐의 하천 방류 용수를 농어촌공사의 부안양수장을 가동 공급해주시 등 5개 저수지에 담수, 상습 한해지역 일대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다.

특히 이 지역의 가뭄이 해결된 배경에는 이현수 부안군의원을 비롯한 부안군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의 가뭄 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김병수 부안지사는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피해 예방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부안군 권재민 부군수와 홍호시 운영 부시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갖고 청소년 흡스데이, 문화혁명 운영, 관광객 상호 교류 등을 의논했다.

부안군-중국 호북성 홍호시, 우호교류

홍호시 실무단 7명 부안군 방문

부안군이 중국 호북성 홍호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한다. 부안군은 지난 5일부터 3일 간 중국 호북성 홍호시 인민정부 운영 부시장 등 홍호시 실무단 7명이 부안군을 방문해 우호교류 추진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홍호시 실무단은 부안에 머무르는 동안 정치를 제외한 경제, 문화, 체육

교육, 관광, 공공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고 홍호시보다 앞선 발전에 감탄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부안여자고등학교 김강남 교장선생님의 안내로 부안의 대표 여성교육기관인 부안 여고의 교육환경, 도서관, 실험시설, 중국 유류 추진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와 함께 지난 6일에는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부안군 권재민 부군수와 홍호시 운영 부시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갖고 양도시간 청소년 흡스데이, 문화혁명 운영, 관광객 상호 교류, 교육·스포츠, 농·특산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올 연말 내에 자매결연 체결을 협의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홍호시 실무단 방문은 양도시간 민·관의 다양한 우호교류를 통해 미래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내년 대입수시전형 이해·전략 제시

오늘 오후 7시 지평선학당서 입시전문가 조은혜 초청 설명회

2017학년도 수시전형 이해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입시설명회가 8일 오후 7시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 예정으로 지평선학당 다목적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근식) 주최로 개최될 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고의 입시전문가인 조은혜 소장(명인애듀 입시전략연구소)을 초빙하여 2017학년도 수시전형 이해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부터 이

러우지는 2017학년도 수시원서접수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과 부담감을 덜어주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조은혜 소장은 이날 강의에서 다양한 수시 전형 중 수시교과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 다양한 입시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서울 주요 수도권 대학 등의 사례를 심도있게 설명하고, 수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개별면접 질문 등 수시

입시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100분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김제시 거주 고등학생 및 학부모는 8일 지평선 학당(545-6708)에 방문해 입시설명회를 참석하면 된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 양문열 상임이사(키시 인재양성과장)는 "수시전형 원서접수 바로 전에 시행하여 각종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야"

정읍시, 시민 인식 개선 홍보

정읍시가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까지,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어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

가 가능하다"며 "특히 지난해 신설된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내부와 앞 뒤, 좌, 우, 진입로 등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한 경우, 기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들을 모두 일컫는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주차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액수가 큰 만큼 위반 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다수의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주력해 시민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는 장애인협회와 연계, 장애인 편



의시설 설치도민족친선단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정읍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고 있으며 단속은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또 일반시민은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밀반찬은 멸치볶음, 무장아찌, 오징어젓갈등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4L 반찬통 700통을 19개 읍면동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했다.

추석맞이 밀반찬 만들기 행사 펼쳐

김제시새마을회, 반찬통 700통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김제시새마을회(회장 김창수)가 지난 6일 새마을회관에서 추석맞이 밀반찬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헌 옷, 농약병 등 폐자원을 모아 알뜰살뜰 모아둔 수익금으로 마련된 이번 밀반찬 나눔행사에는 새마을지도 김창수 회장, 강인식 협의회장, 문순자 부녀회장, 채우영 문교회장을 비롯한 19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80여명이 참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밀반찬 만드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밀반찬은 멸치볶음, 무장아찌, 오징어젓갈등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4L 반찬통 700통을 19개 읍면동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하였다.

김창수 회장은 "살맛나는 김제, 행

복한 김제 만들기를 염원하는 새마을식구들의 정성을 듬뿍 담아 추석에 맞아 쓸쓸한 마음이 드는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정을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 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제시새마을회는 지평선축제제를 비롯, 지역의 크고 작은 대소사에서 자발적으로 굿웃음을 도맡아 지역회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나눔·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공동체운동, 이웃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지구촌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김제시와 LH,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 위해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유형은 1형 전용면적 50㎡ 이하 1~2인 가구용(17세대) 과 2형 전용면적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48세대)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이코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며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8)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공신청자격자이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50%(4인가구 289만원)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정특성·교부된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사람이다.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정적용 등은 공공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및 접수: 10월 10일부터 수시 접수하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은 신청기간 내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공공참고)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접수하고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LH홈페이지(www.lh.co.kr)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지역 온정의 손길 이어져

백미기탁과 사랑의김장나눔 행사 등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랑나눔을 실천하려는 부안지역 기관단체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이영식 협의회장은 지난 6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김종규 부안군수에서 백미 200포(400만 원 상당)를 기탁하고 추석을 맞아 탈북 주민과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조손 가정 등에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이영식 협의회장은 15년 이상 매년 추석과 설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역안정 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눔기금농장학재단에도 지난 2011년부터 총 8000만 원

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랑에 앞장 서고 있다.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순)도 지난 7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부안군 종교계와 함께 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화합과 희망의 프로젝트로써 각 종단별 자원봉사자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기쁨배봉사단(대표 김연자), 생활관리사 등 50여 명이 참여해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아 관내 홀몸 어르신 250세대와 차 상위계층 종교인 150세대 총 400세대에 전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